

93 (총 93)

W. L. Thompson, 1904
모듬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ELIZABETH: IRREG.
W. L. Thompson, 1904

1.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2.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3.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4.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증에 빠지리
 그그은 명을 준 행하어 종충영 생 언
 이 세 상을 떠 나 갈 때 곧 영 생 언

눈물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햇빛과 비를 호 주시니 내 추수할 곡식 많도다
 주야로 보호을 주시고 내 바름길 가계쁨 하시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내 영원한 기쁨 주시니

위로 하 고 힘 주 실 이 주 에 수 수 수
 귀한 일 매 주 시 는 이 주 주 주 주
 나의 생 명 따 라 의 기쁨 주 주 주

시니어 순모임(4월)

인도: 순장
 대표기도: 말은이

- 📍 찬 양 — 찬송가 93장(예수는 나의 힘이요) — 다같이
- 📍 대표기도 — 말은이
- 📍 감사제목 나누기 — 다같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 📍 기도제목 나누기 — 다같이
(본인의 기도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어 봅니다)
- 📍 말씀 나누기 — 말은이
- 📍 합심기도 — 다같이
 1) 백신 보급이 신속히 이루어져 온 교회가 정상화 되도록
 2) 영적 회복과 일상의 회복이 있는 4월이 되도록
- 📍 광고 — 말은이
- 📍 주기도문 — 다같이

- 알려드립니다.
1. 현장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중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교회 출입시 자가진단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새벽예배를 교회에서(다목적실) 드릴수 있습니다. 예약하지 않고 오셔도 됩니다.
 3. 현장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교회 사무실 또는 최정호 목사, 박영주 전도사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참석 예약을 하실 수도 있고 당일 교회 입구에서 출입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원하는가? 누가복음 24:1-12절

사복음서는 모두 마지막 결론을 부활이야기로 맺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며 무덤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모든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종착역, 모든 싸움이 끝나는 결승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바로 말씀이 믿어지고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특별한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과 제자들, 그들이 부활을 체험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본문은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사랑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합니다

안식후 첫날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달려간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도, 부활의 첫 증인도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믿음도 부활 신앙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먼저 부활의 복음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둘째,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제자들도 다 무너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사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순간적 감정이 아닙니다. 굳건한 결단도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6-7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시는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마지막 결론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들려주는 말에 비로소 여인들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이해되기 시작하자 모든 말씀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어떤 반응했습니까?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려’ -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아무 의미 없이 듣고 허튼소리로 듣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받아도, 사도라 이름을 들어도, 돌아가신 십자가를 눈으로 보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부활의 소식이 허탄한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제자들 뿐 아니라 이 시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여깁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람의 존재는 믿지만 2천년 역사 동안 들어온 예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기적 같은 삶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세상 한번 살아가는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이 있다는 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부활의 복음을 위해 그들은 기꺼이 땅 위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았던 여인들,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던 제자들, 그러나 주님을 체험했을 때 한결같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